

제주 화장품·블록체인특구 재도전

도, 지난달 3차 지정신청 예비 수요조사서 제출 제주만의 특화·차별화된 전략 마련 여부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 탈락했던 화장품 및 블록체인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재도전에 나섰다. 한번 고배를 마셨던만큼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주만의 특화·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제주 화장품 및 블록체인 산업을 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지정신청 예비

수요조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도는 중기부 3차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지정절차가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지정 절차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날부터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신청 준비를 위해 재오픈 한 것으

로, 일단 오는 26일까지 1차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관련해 특구계획 수립과 지정신청을 통해 특구에서 추진할 사업분야, 추진기업, 규제특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된 과제가 선정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아이템만 제시된 상태로 그림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기업들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와

연계성이 선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만큼 이를 고려한 제주만의 특화·차별화된 사업 발굴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화장품 산업을 제주의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해 이를 통한 1·3차 산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 서비스 개발 및 도민이 체감하는 시민 중심적 서비스 모델 구축이 목적이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내일 개장 먹거리·공예 등 청년점포 20곳 들어서

지난 2018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주도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19일 개장하는 '생기발랄' 청년몰은 전통시장 유희시설에 청년점포, 기반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청년몰은 2018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4억원이 투자됐으며 이도1동 1361-1번지 소재 건물에 '생기발랄'이라는 네이밍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청년점포 20개소 및 창업지원공간, 고객편의시설 등을 조성했고 선별된 예비 청년창업자 20명의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몰 내에는 먹거리, 공예 및 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으로 청년창업자들이 창업 준비하고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 셋째 일요일은 휴장하게 된다.

생기발랄 청년몰은 청년상인 및 상인회로 구성된 청년몰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고 상인회 산하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성해 청년상인들의 안정적 창업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년상인들이 창업을 위해 점포임대료 등 창업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으로 청년상인들이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겨울비 내린 제주, 오늘부터 기온 '뚝'

체감기온 4℃까지 떨어져

18일 제주지역 날씨가 다소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나 갑자기 떨어진 기온과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4℃까지 떨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아침 기온은 7-9℃(전날 13-15℃, 평년 4-6℃), 낮 기온은 9-14℃(전날 18-20℃, 평년 10-13℃), 19일 아침 기온은 6-7℃(평년 4-6℃), 낮 기온은 8-13℃(평년 10-13℃)가 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바람이 10-16m/s로 차차 강하게 불어 파도가 2.0-4.0m로 높게 일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뱃일 할게요"... 역대 선불사기 3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승선했다고 속이고, 다른 어선 선주들에게 빚진 선불금 채무 1억2800만원을 10회에 걸쳐 B씨가 대신 변제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에는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된 C호에 적재돼 있는 160만원 상당의 주낙어구 40통을 절취한 혐의와 절취한 주낙어구 등을 이용해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에 나선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양사랑으로



제주공항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7일 제주관광인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강희민기자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서귀포시 2.94% 인상 기본재산 공제도 확대

서귀포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138만원에서 142만원으로 2.94% 인상된다. 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 근로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았던 25-64세에 대해 생계급여 수

급자에 한해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하게 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며,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훈기자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국립제주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2019. 12. 26.(목) 09:00 ~ 12. 31.(화)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유웨이어플라이)
문의전화 064)754-3990~3995

2020학년도 편입생 모집
접수기간 2019. 12. 27.(금) 10:00 ~ 12. 30.(월) 17: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유웨이어플라이)
문의전화 064)754-3995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